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產教育學科

文 經 復

2020年 8月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指導教授 金 恩 石

文 經 復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年 6月

문경복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광 중	
위 원	김 승 희	
위 원	김 은 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0年 8月

Jeju haenyeo(Women divers) Labor As the Historical Formation

Kyeong-Bok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Eun-Su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Eun-Suk Kim,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Kim, Eun Suk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2
II. 부역 담당자로서의 ‘즘녀’	5
1. 해녀의 시원으로서의 조선시대 이전 나잠어업자	5
2. 조선시대 부역 담당자로서의 즈녀	6
1) 조선전기 : 포작의 보조자로서의 즈녀	6
2) 조선후기 : 국가 진상역 담당자로서의 즈녀	9
III. 일제시대 임금노동자로서의 해녀	13
1. 생계형 ‘바깥물질’ 노동	13
2. 해녀조합 형성과 노동쟁의 전개	17
3. 일제강점기의 제주해녀에 대한 표상	20
IV. 근대 이후 지역개발과 관광제주의 표상으로서의 해녀	23
1. 개발시대 : 상품경제의 변동과 해녀공동체 붕괴	23
2. 관광중심시대 : 제주관광과 해녀 위상 변화	25
V. 결론	28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주해녀가 과거부터 늘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으로 존재하였을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생명의 과정을 거둡하는 모든 사물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서 존재한다. 제주해녀 역시 선사시대부터 수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온 역사적 형성물이다.

특히 해녀노동의 경우 시대마다 성격과 의미가 다르게 작용해왔다. 조선전기까지 물질은 남녀 개별 또는 협업형태의 노동자로 존재했다. 그 이후 과중한 진상역부담을 피해 출륙한 포작(鮑作)의 역(役)이 잠녀들에게 전가됨으로써 나잠어업(裸潛漁業)은 잠녀들의 전유물이 되어 현재 해녀노동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천역(賤役)을 천형(天刑)으로 대물림하던 진상역(進上役)은 조선시대 말 역의 극심한 폐해 때문에 폐지되었다.

해녀노동의 질적 변화를 거치는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개항 이후 일제의 상품경제에 편입된 해녀들은 돈이 되는 임노동적인 바깥물질에 종사하였지만,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당하는 구조 속에서 수탈과 착취를 견뎌내야 했다. 이윽고 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례 없는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해방 이후 해녀노동의 물질 기반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바깥물질 기회가 줄어들어 드는 가운데 여전히 생계를 책임진 해녀들은 한정된 노동환경에서 물질을 해야 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감귤산업육성, 관광개발 등에 의한 상품경제의 변동이 또 다른 해녀노동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제반 변화요인으로 해녀 수의 감소와 해녀 노동의 기피현상이 더해져 해녀노동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강인하고 근면한 제주 여성의 상징’인 해녀상은 해녀노동의 실상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해녀들을 초과노동으로 모는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는 실상을 외면한 허상의 해녀상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해녀와는 구별 할 것을 제안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살아있는 실제로서 제주해녀는 ‘천(賤)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굴레를 평생 짊어진 채 역사 속에서 부과된 질곡을 헤쳐 나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며 해녀공동체 노동문화를 이뤄낸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제주 해녀¹⁾의 노동을 역사적 환경조건, 즉 정치적·경제적 조건에 의해 변화해 온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해녀노동의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따라 변화해온 것으로, 해녀노동의 물질 기반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해녀노동의 실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제주해녀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 온 것을 밝혀내어 지금의 해녀상의 한계는 무엇이고, 앞으로 21세기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녀의 실존에 다가설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녀의 물질을 노동으로 정의하고, 이 틀에서 조선 봉건왕조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 따른 해녀에 대한 인식과 정책 실현의 과정이 어떠한 양상을 통해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의 성격과 형태가 달라지는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노동조건과 정책의 배경이 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해녀노동과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 목적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조건과 역사적 변천, 즉 선사시대 원시노동, 정치 공동체 출현과 부역제도, 유교문화, 개항과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체제, 해방 이후 경제개발시대, 민선자치시대 도래 등 다양한 역사적 환경조건들이 제주해녀의 물질 노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 형성된 노동자로서의 제주 해녀와 제주해녀의 특유한 노동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제주인이 영구불변의 인간본성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특정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²⁾이듯이 해녀노동이 역사적

1) ‘해녀(海女)’는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들을 ‘잠수(潛嫂)’, ‘잠녀(潛女)’라 부른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8), 『제주해녀 이해』, 하나CNC, 4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칭으로 일반화된 ‘해녀’란 용어를 쓰지만, 조선시대에는 당시 불리던 역사적 용어로 ‘잠녀’를 표기한다.

으로 다양하게 변해 온 것을 밝혀 해녀노동의 실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녀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 해녀 관련 옛 문헌과 각종 연구 논문, 간행물, 학술지, 도서, 일간지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녀의식 조사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전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용하였다.

다만, 제주 해녀 신화화에 대한 해체작업이 여성 특히 제주 해녀들에게 긍정적인 상징을 파괴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화화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후학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그 동안 ‘근면하고 강인한 해녀상’으로 상징되는 해녀의 이미지는 상당한 정도로 굳어졌다³⁾. 아직까지도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이 ‘근면하고 강인한 해녀상’이라는 신화화된 이미지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이 계속되는 신화화된 해녀 연구로 인해 재생산되고 있다⁴⁾. 이것은 역사적 접근에 의한 결론은 아닌 듯하다.⁵⁾ 이에 대하여 신화해체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녀노동의 실제적 접근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해녀에 대한 신화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화 해체 연구에 대한 관심의 비율 증가이다.

2) 김은석(2012),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 『제주도연구』 제38집, 115.

3) 박찬식(2001),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136.

4) 권기숙(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240.

5) 박찬식(2001), 앞의 논문, 136.

이들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 경제, 교육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해녀연구는 다소 소홀한 편이다. 이러한 부문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때 신화해체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제적 가부장제의 실상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여전히 ‘강인하고 근면한 해녀상’이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 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녀상 해체 연구 결과 제주 해녀는 근대 이전의 줍녀와는 다른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집단이라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제주사회의 담론으로 재생산되는 신화화된 해녀상은 초과노동으로 몰고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함에 따라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란,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원시시대 열매 채취 행위, 사냥,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과 농경사회에서의 농어업, 근대산업사회에서의 각종 생산 활동 등 인간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⁶⁾

먼저 사회적 노동양식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겠다. 원시사회에서는 정치공동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과 채취를 노동의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노동형태였을 것이다. 이후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사회에서는 생산적인 노동은 노예가 담당하였다. 노예는 소유가 가능하여 매매나 교환의 대상이었다. 봉건제가 지배적이었던 중세사회에서 노동의 담당자는 농노였으며, 농노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회체계 때문에 봉건영주에 예속되었다. 자본제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노동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⁷⁾ 그런데 자본제 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과 분리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생산 작업을 하지 않을 없다. 이는 사실상 노사관계가 지배·복종의 관계로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상태를 견지하기가 어려워 노사교섭 상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6) 한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2020년 6월 17일, 검색어 ‘노동’.

7) 위의 사이트.

한편, 여성의 임금노동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이 기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초기에는 미혼여성이 방적공장 등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기혼여성까지 기계·화학공장이나 사무·판매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저임금의 보조적 노동에 종사하거나, 임시파트타임 사업장에 고용되는 등의 성차별문제가 있었다.⁸⁾

여성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공장에서 기계와 함께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종래의 숙련된 남성 노동자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가 미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주변사업장에서도 여성노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⁹⁾

한국여성노동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운데 봉건적인 사회경제가 와해되고, 식민지적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저임금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¹⁰⁾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은 몹시 가난했고, 가장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돈벌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였다. 결국 일제는 한국여성의 노동력을 일본인 남성의 1/4에 해당하는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적 착취의 수단으로 삼아 사회구조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¹¹⁾

제주 해녀노동은 원시시대부터 바다를 대상으로 물질을 통해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해산물을 획득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그 과정에서 해녀들의 노동양식도 다양한 역사적 환경조건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해녀가 여성노동자라는 점 때문에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차별문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수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 해녀노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8)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0년 6월 18일, 검색어 “여성노동”.

9) 맑스사전,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0년 6월 18일, 검색어 “여성노동”.

10) 오숙희(1987),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11) 위의 논문, 41-42.

II. 부역 담당자로서의 즈녀¹²⁾

1. 해녀의 시원으로서는 조선시대 이전 나잠어업¹³⁾자

사면이 바다인 제주섬에서 나잠어업은 식량 공급원으로서 바다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필요했다. 나잠어업 존재여부는 선사시대 패총 유적에서 잘 드러난다.¹⁴⁾ 즉 다양한 패류 유적은 물질이 선사시대부터 자급자족을 위한 원시노동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시노동의 형태가 탐라국시대¹⁵⁾에 접어들면서 바뀌게 된다. 잘 알다시피 탐라는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고대국가와의 조공무역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의 해산물은 조공무역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고대사회의 조공무역은 탐라와 같은 소국(小國)이 백제 등과 같은 국가 단위 정치집단에게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공물은 탐라국의 정치적 실력자가 전복 속에서 발견된 ‘가(珂)’, 즉 진주를 수집해야 했다. 조공에 대한 답례품은 정치적 실력자의 위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관등¹⁶⁾과 무기류였다.¹⁷⁾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에 따르면, ‘珂則涉羅所產’이라 하여 탐라의 특산물 ‘가(珂)’가 등장한다. ‘가’는 진주로 추정되는데 탐라가 진주를 진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주 무가(巫歌)인 조상본풀이에서 ‘진주할망’과 관련

12) 제주지역 방언에는 ‘아래아(·)’와 같은 중세 국어의 요소가 잘 남아있다. 흔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주방언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발음상 독특한 ‘·’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는 즈녀(潛女), 말(馬), 바람(風), 녹물김치(배추로 담근 김치), 촛멸(제주 근해에 잡히는 등에 줄이 없는 멸치) 등 자연·음식·어류·생활도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어휘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참고.

13) 나잠어업은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https://ko.dict.naver.com>)』, 2020년 6월 23일, 검색어 ‘나잠어업’.

14) 제주지역 패총은 신석기시대부터 제주도내 하모리유적, 한동리유적, 상모리유적 등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15) 이청규와 김경주 등에 따르면, 탐라국의 성립은 B.C.300~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형성되었으며, 1105년(숙종 10년) 고려에 병합될 때까지 탐라왕국으로 10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시대에는 삼한, 삼국 등과 조공외교 등 교류 등을 통해 성장하였다.

16)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周王) 二年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17) 전경수(2010),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77-80.

한 본풀이¹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해녀와 조공품에 대한 줄거리를 지닌 본풀이다.

“진주할망은 무역을 간 김 씨 사공을 만나 제주에 입도하고 물질을 하며 판 많은 전북 속에서 진주를 얻어 황재를 했다. 두 부부는 기쁜 나머지 진주를 임금께 진상해서 남편은 동지(同知)벼슬을 얻고, 할망은 구슬치마를 하사받아 ‘구슬할망’이 되었다.”¹⁹⁾

이 신화에서도 공물이 진주이고 자발적인 진상이라는 점은 주목된다. 특히 줌녀조상이 외래인이라는 점은 선진 잠수기술 전파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자 나잠어업자에 대한 존재여부는 고려 숙종 때(1105) 남녀 간의 나체조업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이 시대에 이미 줌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따라서 탐라시대 나잠어업자들은 공납체계 안에서 정부의 조공물 수집에 응하는 존재로서 개별 노동자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후대의 포작(鮑作)과 줌녀(또는 해녀)들로 그 명맥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부역담당자로서의 줌녀

1) 조선 전기 : 포작의 보조자로서의 줌녀

조선시대 부역(賦役)은 조세(租稅) 및 공부(貢賦)와 더불어 수취제도의 큰 몫을 차지했다. 부역은 신역(身役)과 요역(徭役)을 나눌 수 있다. 신역은 특정 인신(人

18) 본(本)을 푼다는 뜻으로, 신의 일대기나 근본에 대한 풀이를 이르는 말. 굿에서 제의(祭儀)를 받는 신에 대한 해설인 동시에 신이 내리기를 비는 노래이기도 하다.: 표준국어사전,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 2020년 5월 12일, 검색어 ‘본풀이’.

19)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유산보존사업회(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디자인오투, 15.

20)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27.

身)에 대하여 정기·정량적인 부역 노동의 징발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범주는 군역(軍役), 향역(鄉役), 장역(匠役), 천역(賤役) 등이다. 이에 비하여 요역은 특정 인신에 부과되지 않고 가호(家戶) 단위로 부과하였고, 부정기·부정량적인 특성을 지녔다.²¹⁾

공납(貢納)은 크게 공물(貢物)과 진상(進上)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물은 지방의 관에서 준비하여 바치는 관비공물과, 관이 민가에서 거두어 상납하는 민비공물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물은 관이 민가에서 거두어 납부하였다. 공물과 달리 진상은 지방 장관이 자신이 관할하는 각 군현에 부과하여 이를 마련한 다음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²²⁾

이러한 부역체계에서 잡녀들은 가호단위로 부과되는 진상역을 채우기 위해 포작인 남편과 협업형태의 노동자로 존재하면서 포작의 보조자로서 부역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공물 진상과 노역 징발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더욱 확고하게 정비됨에 따라 국가의 행정력이 제주섬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치게 됨으로써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렇게 되자 제주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주도민의 생활이 악화된 상황은 선조 34년(1601) 제주어사로 왔던 김상헌(金尙憲)이 남긴 기록²³⁾에 의해 알 수 있다.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생산물이 거의 공물이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토호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 초기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결국 고역에 시달리던 도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제주섬을 떠나 전라도 연변 등으로 옮겨 살았다.”

공천(公賤) 등 고역에 시달리던 제주피역자들은 주로 포작(鮑作 또는 浦作), 포작인(鮑作人), 포작간(鮑作干) 등으로 불렸다. 포작들의 신분은 중앙정부에서 이

21) 소형규(2009), 「조선 전기 지리지 물산 항목의 편제방식과 공물 수취의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

22) 위의 논문, 3.

23) 金尙憲, 『南槎錄』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들을 각사노비(各司奴婢)²⁴)로 파악하는 점으로 봐서 실제 노비와 다름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포작은 해산물을 채취하여 진상역에 부담하기 보다는 해산물 판매를 통해 생계유지에 충당하였다.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포작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지자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방안은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거나, 그들을 수군(水軍)의 보인(保人)²⁵)으로 활용하는 것²⁶)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포작간을 삼아 해산물을 채취하도록 하여 진상에 이바지하는 것도 신역(身役)이라 하며 생업에 안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제멋대로 다른 고을로 옮겨 다니며 수적(水賊)이 되는 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염려하여 이들을 녹안(錄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刷還)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²⁷). 따라서 조선전기 포작은 조선정부의 통제 하에 전복 등 해산물에 대한 진상역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포작들의 역(役)부담은 갈수록 과중해지고 이들에 대한 관의 수탈까지 심해졌다. 포작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流亡)²⁸)하고 익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역을 피해 육지 등으로 출륙하였다.²⁹) 남아 있는 도민들은 더욱 과중한 역(役) 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피역 출륙이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역(避役) 출륙 도민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유망민에 대한 행정적 개선을 외면한 채 출륙 도민에 대한 통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³⁰).

한편, 이 시대에 여자 나잠어업자에 대한 기록은 『성종실록』과 『남사록』 등에 나타난다.

24) 『성종실록』, 35년 1월 10일.

25) 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0년 6월 23일, 검색어 '보인'.

26) 『성종실록』 16년 4월 19일.

27) 『성종실록』, 16년 4월 21일.

28)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https://ko.dict.naver.com/>)』, 2020년 6월 23일, 검색어 '유망'.

29) 金尙憲, 앞의 책, 선조 35년 9월 22일.

30) 박찬식(2001),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144.

“포작인들이 작은 배에 처자를 싣고 해곡(海曲)³¹⁾으로 떠돌아다닌다.”³²⁾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고 익사하여도 징염(徵斂: 세금을 거두는 것)·공응(供應: 역(役)을 제공하는 것)은 전보다 줄지 않기 때문에 흠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 한다.”³³⁾

이 두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조선전기 포작들은 가호(家戶)단위 부역체계에서 진상역을 담당하였고, 포작의 아내인 줌녀는 포작의 보조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진상역은 매우 심한 고역이었다는 점이다.

2) 조선후기 : 부역 담당자로서의 줌녀

원래 진상역의 부과가 포작의 책임 하에 가호(家戶) 단위로 매겨졌기 때문에 포작들은 줌녀를 처로 맞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수영을 하는 여자를 첩으로 삼는 것을 능사로 하는 것이 토착풍습이었다³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호 단위 역 부담 구조는 포작들이 진상역을 줌녀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포작의 보조자였던 줌녀들은 정부의 출륙 도민들에 대한 통제정책 실패로 포작들의 출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대안으로 주목 받게 된다. 결국 조선정부의 대책은 유망민에 대한 쇄환이 아니라 유교주의사회에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며 해산물 채취로 생계를 꾸려가는 줌녀들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역 부과에 따른 나잠어업의 분업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조선시대 줌녀들은 관아에서 작성한 ‘줍녀안(潛女案)’³⁵⁾에 등록되어 주로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캐는 여자이면서 부수적으로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31) 경상북도 울진 지역의 옛 지명.: 한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2020년 6월 23일, 검색어 ‘해곡’.

32) 『성종실록』, 16년 4월 19일.

33) 金尙憲, 『南槎錄』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34) 李元鎭, 『耽羅志濟』, 濟州牧, 工匠조.

35) 李衡祥, 『南宦博物』.

바치는 역을 담당하는 자였다.³⁶⁾

제주목사로 왔던 이익태(李益泰)는 포작이 감소함에 따라 조선정부가 줌녀들을 어떻게 동원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³⁷⁾

“진상(進上)하는 퇴인복(槌引鰻: 말려 두르려 늘인 전복)을 전복 잡는 줌녀(潛女)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줌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데,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採鰻女)나 다름이 없다.”

“익숙하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줌녀(潛女)의 고되고 험한은 현격하게 다르다. 장래에 전복 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균역(均役)으로 전복 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려고 미역을 캐는 줌녀에게도 퇴인복을 나누어 배정하였다.”

“중전에 한 여자의 역(役)은 10명 여인이 힘을 합쳐야 매달 매 사람이 바치는 게 한두 개 전복에 지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오히려 옥신각신하더니 일년을 행하고 나니 편리하다고 하는 자가 많아졌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복 잡는데 익숙해 진 사람들이 더러 있게 되었다. 거의 효과를 보기에 이르렀는데 임기가 이미 임박하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없어서 끝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다시 전복잡이 백여 명에게 퇴인복을 봉하여 진상소에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그 처잠(妻潛)의 역(役)은 전복과 미역을 논할 것 없이 관(官)에 바치는 물건을 아울러 전부 감(減)하여, 뒤에 좋은 변통(變通)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 글에서 정부가 균역을 명분으로 줌녀들에게 전복 따는 것을 익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유교주의 사회에서 천대받는 줌녀들이 정부의 권장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줌녀들은 국가에 의해 포작의 역할까지 떠맡게

36) 李健, 『濟州風土記』: 줌녀라는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37) 李益泰, 『知濼錄』, 增減十事: “進上槌引鰻 專責於採鰻潛女九十名 而老病居多不能支堪 採藿潛女多至八百 遊潛水中 深入採藿 無異採鰻女 而稱以不習 抵死謀避 均是潛女苦歇懸殊 爲慮將來採鰻無人 且欲均役 而勸習採鰻 分定槌引鰻於藿潛 曾前一女之役 十女同力 每朔每名所捧 不過一二介鰻 而訴猶紛紜 行之一年 稱便者多 而仍習採鰻者 間有之 庶見成效 瓜期已迫 或言當罷終未堅執 更使鮑作百餘名 備納進上所封槌引鰻 而其妻潛役 無論藿藿 官納之物 并爲全減 以俟後之善變通也.”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사회풍속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18세기에 이르자 진상용 전복과 관아용 전복 등 해산물 채취를 줌녀들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당시 상황은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숙종·영조 때의 문신(1653~1733). 숙종 29년(1703)에 제주 목사 재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각 도의 어호(漁戶)는 단지 수역(水役)에만 응하여 약간의 진상을 하지만 또한 값을 치러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인 즉 모두 다른 부역을 겸하고 있습니다. 섬안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으므로 다만 줌녀에게 떠맡깁니다. 여인들이 관청의 부역에 따라야 함은 유독 제주만이 그러합니다.”³⁸⁾

또한 비변사의 기록에도 그 당시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관에 ‘줌녀안’이 있는데, 진상하는 미역·전복은 모두 줌녀에게 책임 지운다.”³⁹⁾

한편, 18세기에 줌녀안이 혁파된데 이어 그 이후 수세곽(水稅藪: 세금으로 거두는 미역)마저 폐지⁴⁰⁾ 됨에 따라 줌녀들은 그들을 억눌렀던 진상·공납의 고역에서 해방되었다.

줌녀안에 대한 혁파는 줌녀들의 역이 매우 심한 고역(苦役)에 대한 개선책이었다. 그 대신 관에서 역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전복을 사들이는, 즉 관무복(官貿鰯)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관무복의 경우에도 많은 폐단을 일으키자 줌녀들은 관무복의 완전 혁파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줌녀가 채취한 전복에 대해 관에서 장악하던 방식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줌녀가 채취한 주요 품목 중 미역의 경우에는 정조 18년(1794)에 줌녀들의 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세곽(收稅藪)을 정액화하고, 관무곽(官貿藪: 관에서 사들이는 미역)을 혁파하여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어 순조 14년(1814)에 관무곽은 일

38) 李衡祥, 『耽羅狀啓抄』 第2啓. : “各道漁戶 只應水役 若干進上 又有給價之時 而本島則皆兼他役 島中風俗 男不採鰯 只責於潛女 女人之官役對答者 惟獨本州爲然是白沙餘良”.

39) 李衡祥, 『南宦博物』, 誌俗. : “女役甚重 官有潛女案 進上藪鰯 皆責於此.”

40) 『備邊司謄錄』 236. 현종 15년 3월 15일.

41) 박찬식, 앞의 논문, 149-150.

체 혁파되었고, 헌종 15년(1849)에 수세곽의 역이 폐지되었다.⁴²⁾ 이로써 줌녀들에게 부과된 고역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42) 위의 논문, 150.

Ⅲ. 일제시대 임금노동자로서의 해녀⁴³⁾

1. 생계형 ‘바깥물질’⁴⁴⁾ 노동

일제강점기 임금노동자는 한일합방 이전까지 개항장(開港場)의 물동량이 증대하고 공장이 설립되자 여기에서 임금노동이 발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조선의 임금노동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자본주의 독점 기업가들은 조선인 임금노동자를 값싼 저임금으로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임금노동자들은 무산대중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노동력의 판매조건도 고용주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⁴⁵⁾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등한 노사관계에서도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하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 무산자층인 노동자 입장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 대상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자층이 대부분인 많은 제주도민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의 노동 시장에 저임금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일제가 근대 공업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값싼 노동자를 일본과 가까운 조선 특히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가 식민지 정책에 의해 조세의 수탈, 토지의 박탈 등으로 제주도내에서도 무산자층을 양산함으로써 인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노동시장에 유입된 도민들은 거의 젊은 남성이었고, 일본 대관에 거주한 조선인의 60%가 제주인이었다고 한다.⁴⁶⁾ 이들 노동자 중에는 제주 해녀도 포함되었다.⁴⁷⁾ 따라서 제주도에

43) 서론 각주1)의 해녀 설명 참고.

44) 제주해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정든 고향인 제주섬을 떠나 국내의 반도부나 국외로 나가서 물질을 하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유산보존사업회, 앞의 책, 50-51.

45) 김성수(1990), 「한국 노동운동의 생성과정 연구」, 『사회과학논총』, 87-90.

46) 권기숙(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0집, 234.

47) 제주 해녀의 일본으로의 바깥물질은 1903년에 시작되었는데, 1915년 경에는 그 수가 반도부인 육지로의 바깥물질을 포함하여 2500여 명이나 되었다.: 김영·양정자, 정광중·좌혜경 옮김(2004),

남아있는 여성 노동의 경제적 중요성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제주 해녀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밭일도 전담하는 등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⁴⁸⁾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은 그들을 얽매었던 조선시대 고역인 진상역과 ‘출륙금지’⁴⁹⁾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일제의 자본주의화의 영향에 따라 그들의 물질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임금노동을 통한 ‘돈 맛’을 알게 되었다. 즉 전자본제적인 생산양식 형태인 ‘공납제적 생산양식’ 하에서 부역담당자로서의 줌녀가 자본제적 생산양식 하에서의 해녀로 탈바꿈하면서 해녀들은 새로운 임금 노동자들의 집단이 된다. 이는 제주도가 해녀노동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권 일부로 편입되어졌고, 제주섬의 경제의 중심이 해안마을로 옮겨짐에 따라 해녀들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제주 해녀노동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커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정경제를 책임진 제주 해녀들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어민들의 어장 침탈로 인해 해산물 채취량이 급감하게 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해녀들은 해조류가 일제의 수산 및 군수산업의 원료⁵⁰⁾로써 환금성이 강한 상품이 되면서 일본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종속되어 임노동적인 잠수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부양을 한 몸에 떠맡은 생활전사⁵¹⁾로서 해녀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집단노동 형태의 바깥물질을 나갈 수밖에 없는 주요인이었다. 여기에다 그동안 ‘출륙금지’로 베일에 가려졌던 바깥세계에 대한 동경이 바깥물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바깥물질은 모집인들이 모두 남성들로서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유교문화의 잔재로써 무지한 해녀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사회풍토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제주 해녀들의 바깥물질 형태는 크게 ‘모집형’과 ‘독립형’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집형 바깥물질은 객주가 제주도내의 해녀들을 모집하여 반도부나 해

「잠수의 역사와 출가 물질의 요인」, 『초등교육연구』 제8집, 31.

48) 권기숙, 앞의 논문, 234.

49)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으로, 그 원인으로는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의 이중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50) 안미정(2016),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487.

51)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앞의 책, 52.

외로 나가는 형태이다. 독립형 바깥물질은 주로 해녀들의 남편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도내의 특정 모집원이 해녀들을 모집한 후 그들과 함께 반도부 등으로 나가는 형태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바깥물질의 공통적 특징은 모집원이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과, 해녀들 스스로 바깥물질을 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바깥물질은 남성 모집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일본으로 떠나는 바깥물질은 일본인 수산업자와의 계약당사자인 객주 등 모집인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였다.⁵²⁾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객주들이 일본 해조상과 결탁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해녀들의 수익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보도된 동아일보의 기사⁵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객주들의 자금은 거의 일본 상인들이 대어 주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객주와 결탁하여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일본인이 세운 해조회사에 넘겼다. 이외에도 해녀들이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거간료를 가로채었다. 결국 해녀들이 고생하여 채취한 해조류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중간상인 이익을 가로채 버렸다.”

특히 물상객주(物商客主)들 중에는 제주 해녀들의 남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해녀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해녀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함께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깥물질을 통해 큰돈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은 해녀들이 얼마 안 되는 수익금조차 알뜰히 모아 만든 노력의 대가라 할 수 있다.⁵⁵⁾ 그렇게 벌어들인 해녀들의 소득은 제주도내에서 물질로 인한 수입보다 2배 이상⁵⁶⁾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 해녀들의 바깥물질노동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자본주의 상품경제

52) 위의 책, 58.

53)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54)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5), 앞의 책, 59.

55) 위의 책, 57-59.

56) 1929년경 출가 인원은 3,500명이고 어획고가 50만여 원인 데 반하여, 제주도내 작업인원은 7,300명이고 어획고는 25만여 원이었다.: 박찬식, 앞의 논문, 152.

체제에 편입되었고, 그 결과 형성된 시장은 해녀들의 노동력이 저렴하게 이용당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1929년 제주도내 잠수 7,300명이 약 25만 엔을 벌어들인데 반해, 일본으로 출어한 경우 3,500명이 40만 엔을 벌어들였다.⁵⁷⁾ 이는 일본 바깥물질로 인한 소득이 도내에서보다 3.3배 높고, 육지 바깥물질로 인한 소득보다도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현지에서 제주 해녀들의 소득은 ‘아마(海女)⁵⁸⁾들보다 낮았다.⁵⁹⁾ 따라서 제주 해녀들의 일본 바깥물질은 일본의 어장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그 시장은 제주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⁶⁰⁾

이러한 시장구조에는 해녀들의 바깥물질과 관계된 매개자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 매개자들은 바깥물질 모집인, 일본인 해조상인, 일본 현지 어장주인, 지역의 어업조합 등이며,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로 벌어들인 시장소득은 그들에게 분산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 어장을 하나의 ‘열린 바다’로 만들고 있었으며,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⁶¹⁾

한편, 제주 해녀들의 소득은 일제의 자본주의 상품경제체제 하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당하는 구조 속에서도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해안마을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은 점차 농촌지역까지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현상이 더 확산됨으로써 해녀들의 소득은 제주도경제의 초석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주도의 취약이동은 일제강점기 해안마을에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상승,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발달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경제적 기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일어났다. 당시 중산간 마을에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경작지와 방목

57)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266. 1915년 제주 해녀의 연소득은 평균 33원 가량이며 정미(精米) 한 석(石) 가격은 18원이었다.: 진관훈(2019),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제주 해녀 연구」, 『제주도연구』 제52집, 244.

58) 일본의 문헌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해녀를 부르는 호칭인 ‘아마’로 발음되는 ‘해녀(海女), 해인(海人), 해사(海士)’ 가운데 여자 나잠어업자를 지칭할 경우는 ‘해녀(海女)’로, 남자 나잠어업자를 지칭할 경우는 ‘해인(海人), 해사(海士)’로 구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6), 『제주해녀,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다』, 디자인 오투, 23.

59) 김영·양정자, 정광중·좌혜경 옮김(2004),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각, 237.

60) 안미정(2016),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85, 489.

61) 위의 논문, 489.

지 등을 상실하여 생산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간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찾아 해안마을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부의 확산이 일어났으며, 제주도 농촌전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시기에 개설된 제주와 일본 사이 직항은 제주도민들에게 도일(渡日) 기회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다 해안마을에서 확산된 부는 도일에 따른 재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도일이 훨씬 쉬어졌다. 결국 제주도민들의 도일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구조 속에서 노동기회가 부족하였던 잠재적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였다.⁶²⁾ 따라서 해녀들의 물질노동으로 인한 소득의 상승은 이주비용과 취업 전 초기체제 비용,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각종 기회비용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⁶³⁾ 따라서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해녀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농촌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도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해녀조합 형성과 노동쟁의 전개

조선사회의 임금노동은 일본자본주의 침투기에 형성되었다. 그것은 형성 초기부터 수탈 임금 정책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 식민지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민족별 임금격차를 특성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임금노동자의 특성은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무산대중이며, 그들의 유일한 수입은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인 임금이 뿐이다. 이들의 노동력 판매조건도 고용주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된다. 결국 노동자들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행동으로 고용주에게 대항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에는 조선사회 지식인들이 나섰다. 그들은 일제의 수탈임금정책에 맞서 전국에 분산된 친목적 성격의 노동단체를 결합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는

62)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004 봄호』 제27권 제1호(통권 94호), 161-162.

63) 위의 논문, 165.

당시 조선공산당, 신간회 등 정치적 단체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로 발전함으로써 활발한 노동쟁의를 일으켰다.⁶⁴⁾

제주 해녀들도 일제강점기 최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여 어용화된 해녀조합을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의 배후에는 조선공산당 제주도 세포조직의 전단계인 혁우동맹원들이 있었다.⁶⁵⁾

당초 해녀조합의 설립 목적은 출가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한 제주도의 유지(有志)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⁶⁶⁾ 해녀조합이 설립되기 전 해녀들의 노동환경은 해녀들에게 수탈과 착취의 쟁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최악이었다. 설립 초기 해녀조합은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여 주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그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해녀조합의 판매고와 조합원 수가 급신장하였다. 그 결과 제주 해녀들의 바깥물질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의 어업조합과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들의 수입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해녀조합은 일본인 제주도사(濟州島司)의 해녀조합장 겸임이 이루어지면서 어용화되어 갔다. 이 관제 해녀조합은 일제가 수탈정책을 수행하는 통로가 되었다.⁶⁷⁾ 결국 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해녀조합은 어용화된 조합으로 변모하면서 해녀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해녀의 실수입은 2할 정도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매상고의 5할은 해녀들이 출가지에서 채취한 해조류를 특정 회사에 판매하게 하고, 이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나머지 1.8할 정도는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하였다. 여기에다 조합비, 선두의 임금, 거간 사례비 등으로 다시 공제하였다. 이러한 최악의 노동환경은 해녀들에게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게 만들었다.⁶⁸⁾ 결국 제주 해녀들은 스스로 어용화된 해녀조합을 상대로 수탈과 착취 문제 등 그들의 최악의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녀조합 설립을 주도한 제주도 유지(有志)들이 이러한 해녀들의 절박

64) 김성수(1990), 「한국 노동운동의 생성과정 연구」, 『사회과학논총』, 90-98.

65) 박찬식(2006),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호, 47-48.

66)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67) 박찬식, 앞의 논문, 153-155.

68) 위의 논문, 155-156.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어용화된 해녀조합을 상대로 최악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남성 유지들로 구성된 해녀조합 발기인들은 당시 해녀들의 가족생계 책임이 사회풍습으로 고착화된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즉 이들은 해녀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해녀들에게 좀 더 돈벌이를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녀조합을 설립한 것은 아닌지, 해녀조합이 비록 어용화되어도 해녀조합의 수입은 안정적이므로 일제의 수탈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최악의 노동환경이 지속되자 해녀들은 스스로 어용화된 해녀조합을 상대로 그들의 요구조건⁶⁹⁾을 관철하기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당시 상황을 신문기사⁷⁰⁾를 통해 살펴보겠다.

“제주도 구좌면 정의면의 육개리에서는 천여 명의 해녀들이 지난 십이일 세화리 장날을 이용하여 호미와 감태재를 들르면서 해녀조합에 대한 두 번째 항의적 ‘대모’를 하는 동시에 때 마침 순시하고 있던 제주도사(濟州島司)를 포위하고 지정 판매 반대 이외 십여 개의 조건을 들어서 진정하려고 하는 것을 경관들이 검(刀)을 뽑아 가지고 이를 제지하였으므로 더욱 분격하여 대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나중에는 요구 전부를 관철하고자 만세 고창하면서 해산 당하게 되었다.”

제주 해녀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선 이유는 그 당시 제주 해녀들은 사회적으로 천시 받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질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를 치열하게 겪어내고 적극적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서로 의지하는 해녀공동체가 절실했다. 다만, 그 투쟁의 대상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었다는 점에서 항일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69)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입찰 경매, 지정판매 반대, 해녀조합비 면제, 도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조합원을 기만하는 관제조합 반대, 일본상인 배척 등: 앞의 논문, 158.

70) 『조선일보』, 1932년 1월 15일.

3. 일제강점기의 제주해녀에 대한 표상

개항 이후 제주 해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은 돈을 벌어들여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경제적 주체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과, 제주 해녀의 무지함과 사회적 신분이 천하여 순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악용하여 해녀들의 소득을 착취하거나 수탈을 일삼기 쉬운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는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군국주의 확산에 나서면서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다. 그 변모 양상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보도된 『매일신보』의 기사⁷¹⁾를 통해 살펴보자.

“바다의 기념일을 앞두고”

“푸른 물결이 깨어져 어른거리는 포말을 날리는 바위 위에 해녀는 서있다. 검정 속옷에(潛水服)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눈(潛嫂鏡)을 쓴 해녀의 한손에는 녹슬은 ‘빗창’이 들려 있고 허리춤에는 해저와의 일전을 개시하려는 직전 무사처럼 무장을 갖춘 해녀의 입 모습에 바다처럼 짙은 웃음이 떠돌았다. 그리고는 어깨 너머로 둘러맨 두루박과 그물망태가 허공을 갈기고 물 위에 떨어진다. 검붉은 해녀의 육탄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산유곡에 온 듯, 푸른 섬 속도 해면도 ‘코발트’ 빛 하늘도 모두 정적에 비친 한낮 지금, 짝을 부르는 사슴떼의 울음과도 같은 해녀들의 휘파람 소리만 바람이 일 듯 수없이 합주되어 들려오고 있다. 다도해의 중심이 된 완도는 요즈음 고등어 도미 멸치 생복잡이가 한창이라 해녀들도 생복 소리를 찾아 여기에 모여든다. 태평양의 섬덩이들이 황국홍망의 결전장이 되어 있다면 이곳의 적고 큰 섬덩이들도 이 전쟁을 승리로 밀고 나가는 전력의 추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섬 이 바다를 지키는 자 해녀의 씩씩한 모습은 그대로 해국 여성의 상징-만리의 파도 넘어 남편을 오빠를 제일선에 내보내고 감연히 ‘바다의 전력증강’

71) 『매일신보』, 1944년 7월 19일.

에 분투하는 해녀들의 정렬에 찬 노래 소리는 오늘도 조류를 타고 그들 남편과 오빠의 결전장으로 힘차게 흘러가 있다.”

여기에서 해녀는 ‘특별히 후하게 대접받는 즉 총후(寵厚) 여성’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해녀들은 일상적 수탈과 착취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불쌍한 여성의 모습이였다. 그런 모습이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를 격려하는 강인한 신체를 지닌 여성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욕망, 특히 남성적 욕망이 발견한 시각적 폭력에 의해 해녀 표상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는 마치 ‘인어(人魚)’와 같은 존재이자 ‘자연의 미인’으로, 혹은 일본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병사를 응원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다.⁷²⁾

이것은 근대 이전 천한 여성이 천역(賤役)을 천형(天刑)으로 대물림해오던 불쌍한 모습의 좀녀와는 전혀 별개이며 일제가 군사·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제주 해녀를 이념적인 형태로 이용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제주 해녀에 대한 신화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의 이미지들 중에서 ‘불턱⁷³⁾과 해녀공동체’의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불턱과 공동체의 이미지는 강인함이다. 해녀공동체는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해녀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물질을 하기 위해 바다자원 고갈과 수탈과 착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형성되었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바다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해녀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들만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해녀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특히 해녀들은 금채기의 활용과 공동 작업을 통한 이익 분배, 전통 지식과 기술 전수 등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유한 공동체 노동 관행을 만들었다. 그러한 노동 관행은

72) 김동현(2015),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史的)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6집, 151-152.

73) 불턱은 해녀들의 집결지이면서 휴식처이자 물질에 대한 지식, 물질 요령, 해녀발 위치 파악 등 대상군에서 얘기 해녀로 이어지는 해녀문화 전승의 장소이다. 아기를 둔 어머니 해녀들에게는 모유 수유의 장소이자 어머니를 해녀로 둔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불장난도하고 소라도 구어먹는 놀이의 공간이자 훈육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특별자치도(2018), 『제주해녀의 자취를 따라서』, 다몽, 38.

불턱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녀공동체 노동 관행은 바깥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제주도내에서 물질 하던 기존 해녀들과 함께 물질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어장환경을 보호하면서 물질하기 위해 집단 노동 형태의 바깥물질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IV. 근대 이후 지역개발과 관광제주의 표상으로서의 해녀

1. 개발시대 : 상품경제의 변동과 해녀공동체 붕괴

제주 해녀의 수는 1913년에 8,391명으로, 15세 이상 제주도 여자인구⁷⁴⁾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⁷⁵⁾ 이후 제주해녀는 196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3,08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 현재 4,005명으로 1965년 대비 82.6% 감소하였다. 특히 1965년부터 1980년까지 66% 감소하여, 이 기간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제주 해녀가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육지의 자본주의 영향과 상품경제의 변동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수는 개항 이후 일본 자본주의 하에서 급격히 늘어나서, 양식업이 보급되기 이전, 감귤 등 현금 작물⁷⁷⁾ 재배가 확산되기 이전에 최고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⁷⁸⁾ 특히 관광개발정책 등 경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여성인력이 이 부문으로도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60, 70년대 제주지역 대다수 남자는 고교 이상 진학하는데 반하여 여성들 특히 해안지역 여성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채 해녀가 되는 게 보편화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 잔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당시 여성들의 희생은 보편화 된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당시 해안마을에서 대다수의 남자는 타 지역까지 나가서 고교 이상 상급학교 진학을 한 반면, 여자는 대부분이 거주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해녀가 되었다.⁷⁹⁾ 그 당시에는 해녀들의 물질수입으로 남자 형제의 학비

74) 1913년에 조사된 제주도 인구는 187,996명으로, 남자가 92,792명이고 여자가 95,204명이다.: 이창기(2011), 「인구변동과 제주여성의 삶」,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Ⅱ』, 제주발전연구원, 35.

75)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집, 160.

76) 1965년 이후 연도별 제주 해녀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제공 받았다.

77) 이 시기 현금작물은 고구마, 유채, 맥주보리, 감귤 등이다.

78) 권기숙, 앞의 논문, 236.

충당은 물론, 새집 짓기⁸⁰⁾ 등에 보태는 것이 당연하여 유행이 될 정도였다. “딸이 셋이면 한 해에 밭 한 뼤기씩 사들인다.”거나 “딸을 낳으면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사내애를 낳으면 엉덩이를 밭로 박찬다.”는 말은 이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⁸¹⁾

남성들은 공적이고 의례적인 활동과 관련된 존재라는 전통이 남아있었다. 그러한 전통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남성들에게 취직에 대한 면제부를 주었고, 이들이 ‘생계부양자’가 돼야 한다는 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⁸²⁾ 이는 초과노동으로 몰아가는 담론 형성과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은 물질로 인한 소득향상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데다 대중매체와 타 도시와의 교류 등의 영향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⁸³⁾ 이러한 가운데 상품경제의 변동은 해녀들은 스스로 그들의 딸들이 해녀업 계승을 원하지 않고, 보다 나은 직업을 갖거나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⁸⁴⁾. 이처럼 제주 해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된 의식은 여성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의 문을 열리게 한 반면, 해녀 직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해녀의 수는 더욱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해녀업의 단절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농사 참여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남성들이 생계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시대상황은 오히려 남아있는 기존 해녀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상품경제의 변동에 따른 해녀 수의 감소는 해녀들의 입지마저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때마침 양식어업제도가 시행되자 기존 마을의 공동체적

79) 조혜정(1998), 「발전과 저발전: 제주 잠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93.

80) 초가를 뜯고 슬레이트 지붕을 한 개량집을 짓는 것으로 당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유행하였다.

81) 김영돈·서경림·김범국(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 230.

82) 조혜정, 앞의 논문, 93.

83) 위의 논문, 95.

84) 권기숙, 앞의 논문, 237.

바다는 양식장 관리 책임이 있는 남성 중심의 어촌계 바다처럼 변해 갔다. 그로 인해 해녀공동체의 붕괴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제주해녀문화는 소멸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관광중심시대 : 제주관광과 해녀 위상 변화

1960, 70년대는 정부 주도로 전 국민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에 발맞춰 경제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강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제주지역에서는 정부주도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녀의 억척스런 삶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주 해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제주 해녀들의 ‘근면하고 강인한 표상’은 더욱 고착화 되어 갔다.⁸⁵⁾ 그러한 근면한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제주도민의 근면성과 자립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실(實)에 있어서는 제주도 잠수들의 눈물겨운 근로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터이며 이 근로성은 그대로 제주도민의 자립정신의 표상으로까지 승화되어 나가고 있다.”⁸⁶⁾

이러한 이미지는 제주 해녀를 다룬 강병찬(1977)의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⁸⁷⁾에서, 김영돈(1994)의 「제주 해녀」⁸⁸⁾ 등 여러 다른 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⁸⁹⁾ 이러한 현상은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각종 연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민선시대 출범 이후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5) 안미정, 앞의 논문, 165-166.

86) 강대원(1973),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1.

87) “본도 여성의 근면성은 전세계적으로 본보기”라고 표현되어 있다.

88) “불가사의한 저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다.

89) 권기숙, 앞의 논문, 240.

“제주인 중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주해녀문화는 제주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친 파도에 테왁 하나를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뛰어 들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모습은 제주인의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메인 캐릭터로 해녀를 선정하였으며, ‘해녀노래’는 제주도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 하나이다.”⁹⁰⁾

그러한 제주 해녀의 이미지는 시대적 욕망이 제주 해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주 해녀의 부지런하고 강인한 면을 부각시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주의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제주 해녀의 이미지는 신비한 인어 공주, 섹슈얼적 상징 등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상품화가 시도되기도 했다.⁹¹⁾

이러한 이미지를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역의 지배계층이 여성들을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도구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적영역에서는 여성을 배제하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성 활동을 장려하고 용인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가부장제 지배원리의 작동으로 볼 수 있다.⁹²⁾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지역문화주의 속에서도 생계를 책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역사 속에 실제 해왔다. 결국 여성들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를 보존해 주기 위한 보조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제주 해녀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제주해녀의 위상은 민선시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⁹³⁾됨으로써 절정에 달한다. 물론 이 등재로 해녀의 이미

90)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앞의 책, 39.

91) 권기숙, 앞의 논문, 242.

92) 김영순(2013),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13.

93) 2016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주해녀가 자연친화적 방법을 통해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9), 『제주해녀를 향유하다』, 디자인 오투, 35.

지는 제주 관광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 해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로 해녀들의 자긍심은 등재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늘 물질이 천한 직업으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물질로 돈을 벌어 자식교육과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⁴⁾

그렇지만 제주 해녀가 ‘근면하고 강인한 여인의 상징’이라는 ‘전통의 발명’의 결과는 제주 해녀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동자로서 제주 해녀의 정체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94) 해녀 의식에 조사는 제주도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전후로 추진한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사업에서 고등학생들이 해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애사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7),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참고.

V. 결론

지금까지 제주 해녀노동은 견고한 생명력을 가지고 부역제도, 일제강점기, 관광개발, 민선시대 등 역사적 환경조건에 의해 그 존재 양태가 가변적으로 달라져 온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주 해녀의 시원은 선사시대 자급자족을 위한 원시노동 형태의 나잠어업이며, 그 이후 탐라시대 조공무역과 관련된 개별 노동자 형태로 존재해오다, 조선시대 포작과 줌녀를 거쳐 현재의 해녀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사회구조상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줌녀는 포작(鮑作)인 남편 중심의 협업형태의 가족단위 노동 관행에서는 포작의 보조자에 불과하였으나, 국가에 의해 출륙 포작의 부역이 그들에게 전가됨으로써 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사회관행으로 고착됨에 따라 줌녀들은 천역(賤役)을 천형(天刑)으로 대물림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은 현재까지도 해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굴레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은 일제에 의해 상품경제에 편입되어 임금노동자로 종사하게 되었지만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당하는 구조 속에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해녀들이 전개한 생존권 투쟁은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온 해녀들의 억울함을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생존권투쟁은 유래가 없는 ‘여성노동쟁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증가하던 해녀의 수는 1960년대 들어 감귤산업육성, 관광개발 등에 의한 상품경제의 변동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해녀업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살아있는 실체로서 해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신화화된 해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제주 해녀가 ‘총후(籠厚) 여성의 표상’으로 시작된 제주 해녀상의 신화화는 해방 이후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민선시대를 거치면서 ‘강인하고 근면한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서의 해녀상으로 확대 재생산 되었다. 그러나

해녀들은 그것이 초과노동으로 모는 담론과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게 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사회 조류에 이끌려갔다. 결국 무지한 해녀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고 있다며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화화’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신화화한 제주 해녀 표상은 해녀들을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만들면서 확대 재생산 되었다. 이로 인해 해녀들의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 희생으로 형성된 해녀공동체 노동문화는 또 다시 민선시대 요구에 의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해녀의 위상은 절정에 달한다. 하지만 해녀의 정체성은 오히려 ‘망각’ 속에 있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결국 지금의 해녀상의 한계는 그 해녀상이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가 작동하여 해녀들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타자에 의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등재의 본질이 해녀노동문화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자에 의해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제주 해녀들의 반복된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근면하고 강인한 해녀상’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 속에 가려진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제주 해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의 해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녀의 실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제주해녀를 살아있는 실제로서 당당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해녀는 ‘천(賤)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굴레를 평생 짊어진 채 역사 속에서 부과된 질곡을 헤쳐 나왔고,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해녀노동문화의 주체로서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를 통하여 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화해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해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해녀공동체 노동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百濟本紀』

『朝鮮王朝實錄』

金尙憲, 『南槎錄』

李元鎮, 『耽羅志濟』

李益泰, 『知濔錄』

李衡祥, 『耽羅狀啓抄』

2. 단행본 및 번역서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옮김(2004),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김찬흠·고창석 등 옮김(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제주특별자치도(2016),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출판기획 풍경.

제주특별자치도(2017),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해녀의 자취를 따라서』, 다몽.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디자인오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8), 『제주해녀 이해』, 하나CNC.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6), 『제주해녀, 역사의 고리를
연결하다』. 디자인 오투.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7), 『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읽다,
디자인오투.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8), 『제주해녀의 공동체를 엿보

다』, 디자인 오투.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9), 『제주해녀를 향유하다』, 디자인 오투.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9), 『제주해녀 문화로 꽃피우다』, 디자인 오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일보(2017), 『한국 해녀를 말하다』, 다자인리더제주.

전경수(2010),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시바 료타로, 박이엽 옮김(1998), 「이즈미 세이이치와 해녀」, 『탐라 기행』, 도서출판 학교재.

3. 논문류

김경희(2007), 「제주 지역 여성 이미지의 탐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현(2015),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史的)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6집.

김성수(1990), 「한국 노동운동의 생성과정 연구」, 『사회과학논총』.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옮김(2004), 「잠수의 역사와 출가(出稼)물질의 요인」, 『초등교육연구』 제8집.

김영돈·서경림·김범국(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

김영순(2013),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석(1999),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제주도연구』 제16집.

김은석(2012),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 『제주도연구』 제38집.

권기숙(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민윤숙(2011),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 『역사민속학』 제35집.

박찬식(2001),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박찬식(2006),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호.

소형규(2009), 「조선 전기 지리지 물산 항목의 편제방식과 공물 수취의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 집.

안미정(2016),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양나래(2014), 「제주도 패총 출토 어패류에 관한 소고」, 『濟州考古』 제1집.

양숙연(1993), 「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숙희(1987),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경수(2012), 「문화주권의 ‘제주해녀’와 해군기지」, 『제주도연구』 제38집.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004 봄호』 제27권 제1호(통권 94호).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진관훈(2019),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제주 해녀 연구」, 『제주도연구』 제 52집.

조소현(2019),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성균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혜정(1998), 「발전과 저발전: 제주 잠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홍정관(2018), 「상군이 된 두 해녀의 생애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4. 기타자료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매일신보』, 1944년 7월 19일.

『조선일보』, 1932년 1월 15일.

맑스사전,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 2020년 6월 18 일.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 2020년 6월 18일.

표준국어사전, 『네이버 사전(<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 2020년 5월
12일.

한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 2020년 6월 17일.

Abstract in English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Jeju Haenyeo has always been a “hardworking and strong Jeju woman”. Strictly speaking, all things that go through the process of birth and death exist as variables, not constants. Jeju Haenyeo is also a historical formation that has undergone various historical changes since prehistoric tim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Haenyeo labor, personality and meaning have worked differently in each period. Until the early Joseon Dynasty, diving existed in the form of individual or collaboration between men and women. Since then, the role of Pojak, who left and escaped from Jingsangyeok, the heavy burden of labor for an authority, was passed on to the women, and Najam Fishery becam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women, leading to the current state of Haenyeo labor. However, Jingsangyeok, which was handed down as a terrible punishment from a mean job, was abolishe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due to the severe harmful effect.

It was Japanese colonial era that a qualitative change in Haenyeo labor was made.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the Haenyeo, who were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commodity economy, were engaged in labor-related working away from home that made money, but had to endure plunder and exploitation under the structure of low-wage labor. They created an unprecedented labor dispute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fter liberation, changes in the physical base of Haenyeo labor took place. In other words, while the opportunities for making money in other places were decreasing, the Haenyeo who were still responsible for their livelihood experienced diving in a limited working environment. Meanwhile, since the 1960s, changes in the commodity economy due to the promotion of the orang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have caused another change in the Haenyeo working environment. All these factors are causin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aenyeo and the avoidance of Haenyeo labor, making the prospect of Haenyeo labor difficult.

However, even in this situation, the image of Haenyeo, the symbol of “a strong and hardworking Jeju woman” could distort the actual situation of Haenyeo labor, thereby acting as a discourse to drive Haenyeo into overtime.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virtual Haenyeo status, which ignores the reality, and the Haenyeo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In reality, Jeju Haenyeo is a subject who has achieved the labor culture of the Haenyeo community by overcoming hardships as a practical head of the family through the frustration imposed in history, carrying the bridle of “poor woman who does a mean job” for life. Such an attempt would be the right approach to their role.